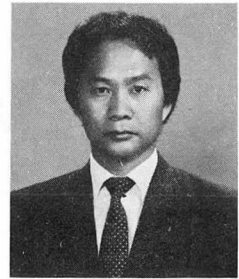


양돈경영 규모와 수익성(下)



정 찬 길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1월호 81쪽에서 계속〉

경영규모 확대 저해요인

양돈경영의 경영규모 확대는 대규모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과 대량생산에 의한 유통의 이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돈생산부문보다 육돈비육부문에 있어서 현저하고 양부문 모두 다 과행적 확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노동생산성이 규모확대와 함께 상승하나 자본생산성 또는 자본수익성은 규모확대에 따라 오히려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과는 규모확대에 따라 오히려 승리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돈경영의 규모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규모확대 투자에 따른 수익성의 저하와 재무불안성이 증대하는 것
- 2) 구입사료 등 물적비용의 증대에 따라 1두당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
- 3) 자돈도입의 증가에 의해 사고율의 상승과 육질의 저하를 유발하는 것
- 4) 육돈부문의 지나친 확대로 자돈생산과 육

돈생산의 불균형 발전이 생기는 것

- 5) 다두 양돈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생산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 6) 축산공해를 일으키는 것
- 7) 땅값이 높게 올라 양돈의 집단화와 경영이전을 저해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양돈의 개별경영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돈경영 규모의 유리성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 양돈경영은 무기적 공업생산과는 다르고, 생물과 노동대상 또는 노동수단으로 하는 유기적 생산이다. 특히, 개별기술의 규모의 유리성이 작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상 기술구조 자체를 개혁하고 기술수준을 높여 갈 수 있는 경영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양돈경영실태에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영적 여러가지 문제와 해결 전략을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다. <1월호 참고>

앞으로 양돈경영의 규모확대와 그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

는 생산량 증진 및 기술의 확립을 도모하고, 과잉투자를 피하고, 경영적으로는 일관생산체제와 경영군의 조직화와 집단화에 의해 경영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그림2>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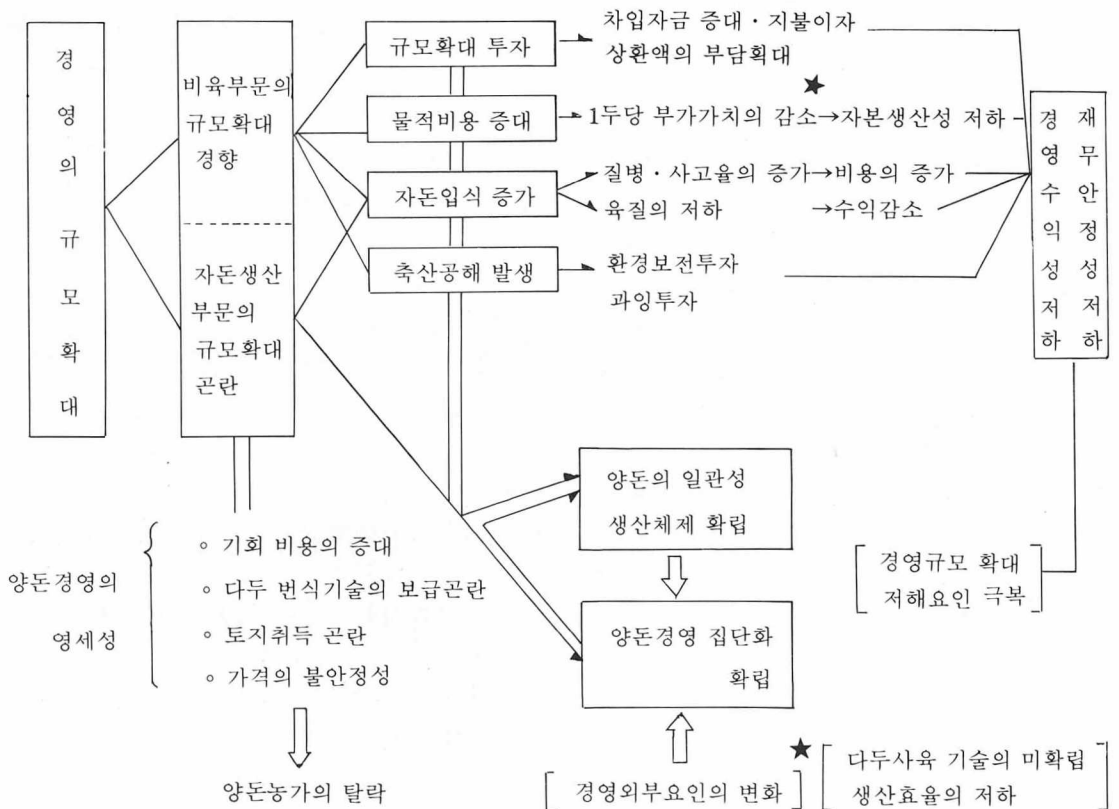
규모의 경제성과 양돈경영의 전개방향

앞으로 식육에 대한 수요와 타축종의 공급능력, 외국으로부터의 식육공급력과 가격수준, 또

사료수입의 동향과 예건, 경영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성 특히 분뇨처리방법의 전개, 그의 유통·가격·기술·정책 등에 관한 꾸준한 관찰과 예측이 양돈경영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양돈경영규모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방향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성을 로빈슨(Robinson)에 의한 사업단위의 가장 우수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① 기술적 제요인 ② 관리적 제요인 ③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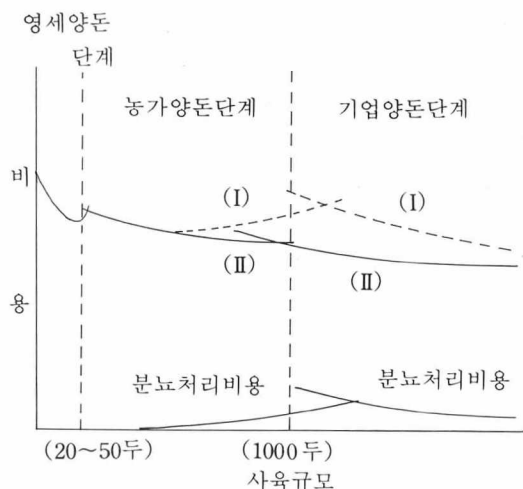


<그림-2> 개별 양돈경영에 있어서 규모확대와 저해요인

무적 제요인 ④ 판매적 제요인 ⑤ 위험, 경기변동의 제요인이 있다고 한다. 또 규모의 경제성은 ① 기술적 규모 ② 기업적 규모 ③ 경영집단적 규모 ④ 경영통합적 규모로 분화하여야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으로 비육돈경영의 기술적 규모의 경제성에 관하여 <그림3>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돈경영을 비용구조면에서 보면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영세양돈단계, 둘째 농가양돈단계, 셋째 기업양돈단계, 넷째 경영통합단계이다.



주: 점선은 분뇨처리 비용을 포함한 평균비용곡선임.

<그림-3> 비육양돈 생산의 평균비용곡선

영세양돈단계를 비용면에서 보면 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림3>에서와 같이 평균비용곡선이 급체감 하는 것은 급속하게 비용의 저하가 가능하지만, 그 비용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업영세양돈농가의 비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높은 비용수준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을 경영목표로 삼는 등 앞으로도 비용을 무시하는 형태

로 존속할 것이지만, 그의 양돈생산상 점유율은 급속히 감퇴해 갈 것이다.

농가양돈단계에서는 현재 비교적 안정단계의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평균비용곡선이 완만히 감소하다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상승 원인이 분뇨처리 비용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 처리가 최대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아름든 장기평균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양돈경영 규모가 400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그 규모는 계속 상층규모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양돈단계 혹은 그 이상 규모에서 보면 비용함수로만 볼 때 기업으로서 비용 상승요인들이 고려되고, 분뇨처리 비용과 사적비용을 종합하여 보면 농가양돈단계보다 비용상승이 되나 그 비용곡선이 농가양돈단계는 U자형 곡선을 띠는 반면에 기업양돈단계는 일반기업부문에서 실증되고 있는 L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규모를 증대함에 따라 계속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보면, 농가양돈단계에서 100~400두 규모가 자생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규모에서는 비용상승 부담이 커서 농가단계에서는 한계가 있고 기업형태의 비용곡선이 L자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돈산업이 농가단계 양돈업의 구축이 되긴 하지만, 점차 기업적 양돈의 점유비율이 높아져 소수의 손에 의하여 다두사육 형태의 양돈경영으로 전환이 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처방안이 뚜렷하게 결정되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경영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